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인터넷 사이트를 서핑하다보면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 것이 각종 동호회이다. 종교 나이 지연 학연 취미 등 공통 관심사를 주제로 한 동호회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스타크래프트'나 '디아블로'처럼 매니아층을 많이 갖고 있는 게임들은 게임 길드가 결성되



### 인터넷시대 막자라도 타자 사이버 불국토 만들자

어 배틀넷에서 전세계를 대상으로 선전하고 있다. 심지어 동성애자 모임인 '이반'들도 의외로 많이 결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PC통신에서부터 번져오기 시작한 사이버 동호회 열풍은 '다음넷'(www.daum.net), '프리텔'(www.frechall.com) 등과 같은 전문적인 동호회 결성 사이트의 출현으로 더욱 가속화됐다. 특히 '모교사랑'(www.loveschool.net)과 같은 동문회 사이트의 폭발적인 인기는 오존 1년 만에 300만 회원확보라는 기록까지 남겼다. 동호회 사이트들은 친목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컴퓨터 초보자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좀더 쉽게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동호회들은 인터넷 주 이용자인 학생 및 젊은 직장인들이 주류를 이룬다. 종교 관련 모임도 예외는 아니다. 다음넷에 개설된 종교 카페 가운데 가장 인기있는 카페는 '크리스찬 이성교제'이다. 서로 다른 종교로 인해 결혼마저도 쉽지 않은 요즘 세태를 잘 반영하고 있기도 한 이 카페는 1만명의 넘는 방대한 규모로 반년이상 종교 카페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종교와 현실적인 요구가 잘 맞아떨어진 카페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같은 종교 카페라 해도 그 카페가 가진 특색들은 모두 달라 지역이나 사람, 나이 등에 얽매인 곳이 아니라면 개설 및 달만에 500명은 거뜬하게 넘는 회원은 확보할 수 있다. 불교계에서도 적극적인 동호회 활동을 기반으로 한 실행활동이 요구된다. 대부분의 동호회들이 온라인 상에서의 채팅이나 게시판 활용으로 끝나지 않고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친목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신앙의 기반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단순하게 사찰 학생회 청년회 등의 모임이 아닌 사찰답사 모임 등 좀더 관심있고 재미있는 분야의 동호회 결성에 눈을 돌릴 때다. 김지연 기자(jygang@buddhapia.com)



◊잡풀과 나무가 옥개석 낙수부에 자라고 있는 안동 신세동 7층전탑.

## 전탑 무너지고 있다

신세동 7층전탑 열차진동 기울어  
 신록사 다층전탑 몸체서 벽돌빠져

통일신라 탑과 양식의 모체가 됐던 전탑이 관리소홀로 붕괴위험을 안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전탑은 국보나 보물로 지정돼 있는데도 몸체의 벽돌이 빠지고 탑 곳곳에 잡풀·잡목이 자라날 때까지 방치되고 있다. 흩으로 벽돌을 구워 쌓아올린 전탑으로는 유일하게 경기도 지방에 남아있는 신록사 다층전탑(보물 제226호)은 탑신부의 벽돌이 빠지고 옥개석이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다. 본지의 23일 현장취재 결과 경기도 여주군 신록사 경내에 세워져 있는 다층전탑은 1층 탑신부 중앙의 벽돌 하나가 빠지고 기울음을 확인했다. 탑신부의 몸체를 덮고있는 지붕적인 옥개석도 빗물이 떨어지는 낙수부가 부분적으로 떨어져 있고, 곳곳에 잡풀과 작은 나무가 자라고 있다. 또 기단부와 탑신부도 아귀가 맞지 않아 틈새를 잡풀로 채워 놓았으며, 탑 자체도 기울어 있는 상태다. 통일신라시대 조성돼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래된 벽돌탑인 경북 안동시 신세동 7층전탑(국보 제16호) 역시 사정은 비

슷하다. 잡풀과 잡목이 자라나 육안 확인으로도 큰 것은 50cm가 넘는다. 게다가 이 탑은 안동-서울 간 중앙선 철길에서 3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 하루 70여 차례 이곳을 오가는 열차의 진동으로 곳곳에 금이 가고 탑이 기울어 있는 등 보존환경마저 열악한 상태다. 지난해에는 네터즌들이 철길 이전 등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으나 아직까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동국대 장흥식(미술사학과) 교수는 전탑의 경우 "옥개의 낙수부에 자라는 잡초나 작은 나무는 전탑 보존에 있어 큰 위요소"라며 "벽돌과 벽돌 사이에 풀이나 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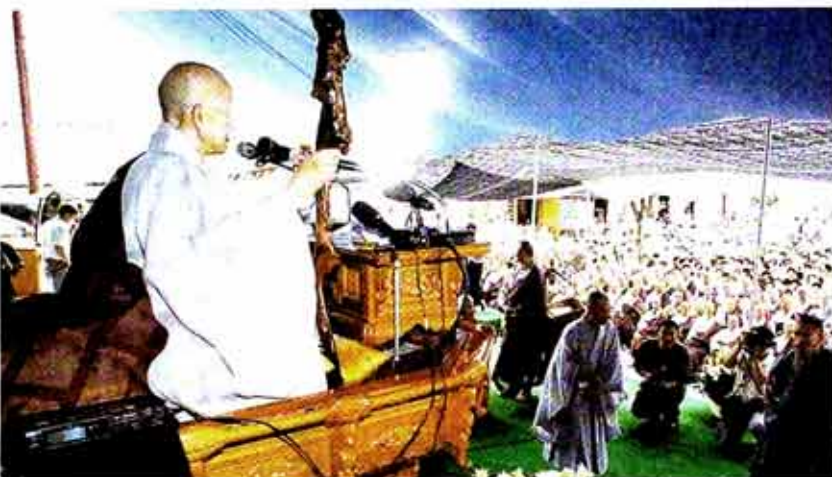


◊벽돌이 빠지고 옥개석이 깨진 여주 신록사 다층전탑.

## 내금강 마하연 복원 추진

평불협 6억 들여... 금강산 생태 세미나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내금강 사찰 복원' 언급 이후 처음으로 평불협(평화통일불교협회, 공동대표 법타스님, 김도연)이 마하연사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평불협은 24일 '금강산 지역 사찰 복원 사업 현황' 자료를 통해 "지난 3월 북경에서 북한의 아세아태평양문화위원회 및 조선불교도연맹과 금강산 지역 사찰 복원에 관해 협의를 가졌다"며 6억원을 들여 건물 2동 건립 120평의 마하연사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평불협은 마하연사 복원을 추진하게 위해 북측과 실무회의를 하고 10월중 평불협 대표단의 현지답사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불협은 또 조선총독부 자료를 바탕으로 금강산생태 학술 세미나 개최와 11월초 북한의 온이상음악연구소 초청 연주회도 계획하고 있다. 조계종, 태고종 등 주요종단들도 종교대표 방북과 내금강 사찰 복원 등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 불교교류 사업을 점검하는 등 움직임이 활발하다. (관련기사 3면)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제2회 '참사람 무차대법회'가 19일 사부대중 6천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백양사에서 봉행됐다. 사진은 고불총림 방장 서용스님과 한 수좌와의 법거랑 장면.

## 법주사·신홍사 관람료 인상 보류

법주사와 신홍사가 문화재관람료 인상을 보류하기로 했다. 국립공원의제도개선 특별대책위원회(국립공원대책특위, 위원장 원택)는 23일 조계종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어 문화재관람료 인상에 관해 논의하고 구체적인 인상 방안은 다음달 5일 열리는 관람료위원회(위원장 지명)의 논의에 따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법주사 주지 지명스님과 신홍사 총무 설승스님도 국립공원대책특위의 의견에 따르기로 했다. 법주사와 신홍사는 9월 1일부터 문화재관람료를 현행 1500원에서 17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었다. 백양사와 화엄사는 지난 7월 문화재관람료를 인상했다. 국립공원대책특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국립공원의제도개선 시민위원회 구성 및 활동을 지원하기로 하는 한편 북위 명칭을 참여연대 소송대응 특별대책위원회에서 국립공원의제도개선 특별대책위원회로 변경하기로 했다. 국립공원대책특위에서 국립공원의제도개선 시민위원회를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총무원은 국립공원 정책과 관련한 비상근 전문위원을 위촉해 기획실에 배치하기로 했다. 정성운 기자

## 사이버 기자 모집합니다

불교계 최초 일간 인터넷신문 '붓다뉴스'가 사이버기자를 모집합니다. 상별 직업 나이에 관계없이 불교정보화를 이끌면서 신성 포교 종단 문화 복지 환경 국제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과 아이디어가 있는 분이면 누구나 지원가능합니다. ●지원방법: 붓다뉴스 홈페이지(www.buddhanews.com) 지원서로 인적사항 및 생목사사를 기입 ●모집기간: 2000년 8월 30일 - 9월 30일 ●발표: 2000년 10월호 '붓다뉴스' ●특점: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문의: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52. rpark@buddhapia.com

## "祖師禪"으로 세계평화 이루자

백양사 '참사람 무차대법회' 6천여명 성황  
 "조사선(祖師禪)의 정신으로 남북통일과 세계평화, 대자연의 조화를 이루자."  
 참사람 결사를 통해 총체적 사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참사람 무차대법회(無遮大法會)'가 19일 장성 고불총림 백양사 대웅전 앞에서 도원(조계종원로회의의 부의장), 보성(조계종림방장), 녹원(동국대 이사장) 스님 등 6천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한국 조사선 전통의 재확립과 참사람 결사의 새로운 세계란 주제로 열린 이날 법회에서 고불총림 방장 서용스님은 법어를 통해 "참사람은 본래 자유자라 하여 인간을 과학문명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고, 불이일체(不二一體)인 대자연은 포용·애호할 수 있다"면서 "종생을 구제하고, 세계평화의 역사를 창조하

기 위해서 조사선 수행을 통해 참사람이 되자"고 설했다. 이어 동화사 조실 진재스님은 "21세기는 참사람을 밝히는 선 수행이 아니고는 세계인류의 평화를 성취할 수 없고, 마음의 갈등을 해소할 수 없다"면서 "모든 사람들이 큰 지혜를 증득하여 편안한 나를 누리기 위해 선 생활 속에 선수행을 꾸준히 닦아야 한다"고 법문 했다. (법어·법거랑 12~13면) 정성=김재경 기자

## 가야산 법보종찰 해인사

### 3,300관 대법종 타종



**■ 재질**

- 동 13톤
- 주석 25톤
- 금 50냥
- 은 7kg
- 인 45kg

(전기로 합금)



## 鐘宗社

☎ 02)725-0878